

## The Grace that Transformed Israel's Hands 이스라엘의 손을 변화시킨 은혜 (창세기 48)

### From Hands of Deceit...

Hebrews 11:21, "By faith Jacob, when dying, blessed each of the sons of Joseph, bowing in worship over the head of his staff." Faith marked the end of Jacob's life....but deceit marked its beginning. We remember the meaning of his name .... 'heel grabber'.... he was literally a 'born deceiver.' Those hands would go on to deceive his own father into giving him the firstborn's inheritance. But here at the end of his life....we see that by grace what were once hands of deceit....had become hands of faith....hands of blessing. Sinclair Ferguson, 'look at your own hands...what's been in your hands?...is it possible that there is grace for you?' After Joseph promised Jacob to bury him with his own fathers in the PL...we read

### Covenant Grace for Israel's Hands (1-7)

V1, 'After this, Joseph was told, "Behold, your father is ill." So he took with him his two sons, Manasseh and Ephraim. And it was told to Jacob, "Your son Joseph has come to you." Then Israel summoned his strength and sat up in bed. And Jacob said to Joseph, "God Almighty appeared to me at Luz in the land of Canaan and blessed me,'

The incident that Jacob recounts is from Gen 28 when Isaac his father had sent him to his uncle Laban's home to find himself a wife from one of Laban's daughters. On the way he laid down to sleep....& had a dream about a ladder b/w heaven & the earth with angels of God ascending & descending on it. He called that place, 'Bethel' meaning, 'house of God' that Jacob also understood as the gate of heaven. In Gen 28 we're told that Bethel was near the city of Luz...

히브리서 11:21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마지막 삶은 믿음의 삶으로 묘사됩니다...그러나 그의 인생의 시작은 속이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는 말 그대로 "속이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또한 속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막바지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속이는 자가 아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불리 옵니다

### 이스라엘의 손을 위한 은혜 언약 (1~7)

1~3 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 구절에서 야곱이 언급하는 사건은 창세기 28 장에 나타난 이야기로, 그의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을 그의 삼촌인 라반의 집에 보내 그의 아내를 찾게 하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 가운데 야곱은 잠이 들었고, 꿈 가운데 하늘과 땅 가운데 사다리가 있어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장소를 "벰엘"이라 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며, 또한 천국의 문으로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 장에서 벰엘은 루스라는 도시 근처에 있었다고 말씀 합니다.

In that place the Lord confirmed his covenant to Jacob again that he had spoken to Abraham & Isaac to give him many descendants & to bring blessing to the whole world through him...He also promised to be with him & to look after him. The vision was the Lord telling Jacob that by His covenant of grace He had made the way for His people to be in communion with Him. As Jacob looked back upon His life....in the last moments before his death....He remembered God's revelation of life.

For us, it is the hope of life fulfilled in Christ that the Lord would have us regularly bring to mind. At the end of the first chapter of his gospel John recorded Jesus saying to Nathaniel, 'you will see heaven opened and the angels of God ascending and descending on the Son of Man.' In that, Jesus was saying that He was the gate to heaven that Jacob had dreamt about. No matter what is happening in our lives — we have this sure hope to help us rise above the trials of life — & be confident as Jacob was — in the face of death itself.

The Lord's particular blessing upon Jacob we see from v4 is where he continues to recount to Joseph that the Lord said to him, 'Behold, I will make you fruitful and multiply you, and I will make you a company of peoples and you will give you this land to your offspring after you for an everlasting possession. And now your two sons, who were born to you in the land of Egypt before I came to you in Egypt are mine; Ephraim and Manasseh shall be mine, as Reuben and Simeon are. And the children that you fathered after them shall be yours. They shall be called by the name of their brothers in their inheritance. As for me, when I came from Paddan, to my sorrow, Rachel died in the land of Canaan on the way, when there was still some distance to go to Ephrath, and I buried her there on the way to Ephrath (that is, Bethlehem),'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 즉 그들의 자녀들을 많이 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 주시겠다는 내용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입증하십니다...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하시며 그를 돌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비전은 주님께서 야곱에게, 그분의 언약에 따라,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을 되돌아 보며, 죽기 직전의 순간에 하나님의 삶에 대한 계시를 기억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소망의 삶으로, 이는 주님께서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서 1 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다나엘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은, 야곱이 꿈 가운데 본 천국의 문이 바로 자신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던, 그 시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 설 수 있게 하는 이런 확고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의 야곱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4 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런 축복의 내용을 계속해서 요셉에게 상기시킵니다... 4~7 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임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임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임 곧 베들레헴이라) ”*

Here we see Israel adopting Joseph's sons as his own in order to bless them with the inheritance as his own sons. 1 Chronicles 5:1 gives us a commentary on Jacob's blessing in saying about Reuben that 'he was the firstborn, but because he defiled his father's couch, his birthright was given to the sons of Joseph the son of Israel so that he could not be enrolled as the oldest son;' that shameful incident - Gen 35:22. We remember the next eldest, Simeon had murdered all the men of Shechem in vengeance after his sister Dinah's sexual assault.

In recent weeks as we've seen 130 y.o. Israel meet Joseph & then Pharaoh....it's been clear that he'd lost his joy & seemed unable to give thanks for God's gracious blessings. Now....17 years later....by what he says...the Lord has brought change. The Lord hasn't finished with any of us just yet! Here is hope.

### Adopting Grace by Israel's Hands (8-13)

V8, 'When Israel saw Joseph's sons, he said, "Who are these?" Joseph said to his father, "They are my sons, whom God has given me here." And he said, "Bring them to me, please, that I may bless them." Now the eyes of Israel were dim with age, so that he could not see. So Joseph brought them near him, and he kissed them and embraced them. And Israel said to Joseph, "I never expected to see your face; and behold God has let me see your offspring also." Then Joseph removed them from his knees, and he bowed himself with his face to the earth. And Joseph took them both, Ephraim in his right hand toward Israel's left hand, and Manasseh in his left hand toward Israel's right hand, and brought them near him.'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자기의 다른 아들들과 동일한 유산으로 축복함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5:1 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에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새번역). 이런 르우벤의 수치스러운 사건을 창세기 35:22 절에서 보게 됩니다. 르우벤 다음인 시므온은 자신의 여 동생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성폭행을 당해, 복수하기 위해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살해했습니다.

얼마 전 설교를 통해 보았듯이, 130 살의 이스라엘이 요셉과 바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기쁨을 잊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17 년이 지난 후, 그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변화를 가져오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삶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며, 좌절하기는 너무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 이스라엘의 손을 통한 은혜 (8~13 절)

8~13 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When Israel says, ‘who are these?’ It’s a formal way of beginning his adoption...much like marriage ceremonies ask the question, ‘who gives this woman to be married to this man?’ Joseph answered his father accordingly & Jacob commanded his son to bring them to him to bless them.

This was all so that the Lord’s grace would fall upon Joseph’s own sons through the hand of Jacob’s blessing. Though the elder two brothers had squandered the full blessing that could have been theirs from their father...his two grandsons born to Joseph in Egypt were the occasion of a great reversal and redemption, not just for them, but also for Israel!

### Electing Grace from Israel’s Hands (14-22)

v14, ‘And Israel stretched out his right hand and laid it on the head of Ephraim, who was the younger, and his left hand on the head of Manasseh, crossing his hands (for Manasseh was the firstborn). And he blessed Joseph and said, “The God before whom my fathers Abraham and Isaac walked, the God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long to this day, the angel who has redeemed me from all evil, bless the boys; and in them let my name be carried on, and the name of my fathers Abraham and Isaac; and let them grow into a multitude in the midst of the earth.’

It’s a different Israel at the end of his life than what he had been 17 years earlier when he had come face to face with Joseph & seemed little more than a sad old man...remember his words to Pharaoh 47:9 were ‘few and evil have been the days of the years of my life.’ Here he praises God as the shepherd whose angel had redeemed him from all evil.

이스라엘이 “이들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이는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한 공식 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결혼식 가운데 “누가 이 여자를 이 남자와 결혼하게 하느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적절한 대답을 하였고, 야곱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자기 아들에게 그들을 자기 가까이 데려와라 명합니다.

이는 야곱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요셉의 친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비록 르우벤과 시므온이 아버지께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탕진하였지만, 애굽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두 손자는 그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도 위대한 반전과 구원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 이스라엘의 손을 통한 택함의 은혜

14~16 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엮바꾸어 엮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47:9 절에서 17년 전 이스라엘을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약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 근심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오늘 구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모든 악에서 자신을 구해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며 찬양합니다.

It's a reminder to us all that though particularly hardships & evils may come into our lives today or tomorrow that leave us downcast...the Lord is constantly at work to help us refocus our eyes back on His goodness & grace — as He did for Israel — to one day praise Him with confidence & also say that has redeemed us from all evil.

Four generations from Jacob in Moses' day — Numbers 1:24 — the combined number of fighting men from the two half-tribes of Joseph adds up to 72, 800...to show us that the united blessing of Israel on his twin grandsons that they grow into a multitude would be fulfilled. There, we're also told that by the time of Moses ~ 400 years after this event, Ephraim had ~ 25% greater population than Manasseh.

In Hos. 5:12 the prophet spoke of Ephraim as a synonym for the entire northern kingdom. In Mal. 3:6 the Lord makes the point for us, 'I the Lord do not change, therefore you, O children of Jacob, are not consumed.' The Lord is steadfast & faithful....that is why Israel wasn't consumed....but would go onto flourish .... It's why all who look to Jesus — no matter what is happening around us will ultimately flourish.

But there was s/t that Joseph wasn't happy about...that in many ways stands as the central point of application of this chapter...v17, 'When Joseph saw that his father laid his right hand on the head of Ephraim, it displeased him, and he took his father's hand to move it from Ephraim's head to Manasseh's head. And Joseph said to his father, "Not this way, my father; since this one is the firstborn, put your right hand on his head.'"

이런 이스라엘의 삶은,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을 겪을 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선하심과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를 찬양하며,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원하신 분이요 고백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24 절에서 보듯이 야곱으로부터 4 세대가 지난 모세의 때에는, 전쟁에 참여 가능한 요셉의 남자 자손만 72,800 이었다 말씀합니다...그래서 이런 숫자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400 년이 지난 모세의 때에는, 에브라임의 자손이 므낫세의 자손보다 25%가량 더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5:12 절에서 선지자는 에브라임의 운명에 대해 북이스라엘의 운명에 빗대 말하고 이들의 멸망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나 말리가 3:6 절에서는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 하지 않고 계속 번창함은 주님의 신실하심과 견고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는,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 궁극적으로는 번창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구절에서 요셉이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부분을 보게 되고, 한편으로 이런 요셉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 관한 적용점에 요점을 나타냅니다... 17 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Joseph had positioned his sons so that the firstborn, Manasseh would receive Jacob's primary right hand of blessing.....with Ephraim to gain the secondary blessing.

The hands of his father had cheated his uncle Esau out of his birthright...Now history for Joseph must have seemed to be repeating itself. We ought not to be surprised that Joseph reacted with displeasure & attempted literally to force his father's hand.

v19, 'But his father refused and said, "I know, my son, I know. He also shall become a people, and he also shall be great. Nevertheless, his younger brother shall be greater than he, and his offspring shall become a multitude of nations. So he blessed them that day, saying, "By you Israel will pronounce blessings, saying 'God make you as Ephraim and as Manasseh."

It's a gentle answer from a man who knew only too well from personal experience what it felt like to have the right of the firstborn go to the second born. In this answer, we see Israel's redemption over the blessing he'd received by deception — albeit still by God's choice — now passed on with a purity of grace that was at odds with how he'd received it all those years earlier. In this he was showing the redeeming power of the Lord from all evil. But we also see God's electing grace....the younger didn't deserve it...but received it

On the other side, we also & particularly see Joseph — one of the most exemplary men in all of Scripture save our Lord Jesus Christ, resisting the grace of the Lord...

요셉은 그의 장자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야곱 앞에 세웁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과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둘째인 에브라임을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하려 하자 요셉은 이를 기뻐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의 손을 강제적으로 옮기려 합니다.

19~20 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이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는 장자의 권리가 둘째에게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개인적인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부드러운 대답이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이 답변에서 속임을 통해 축복 받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이전에 받은 축복과는 상충하는 순수한 은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모든 악에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요셉의 둘째 아들은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인물들 중 가장 모범적인 요셉이, 주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He had great hopes for Manasseh...as the firstborn, Joseph it seemed had naturally preferenced him over Ephraim...it was a lesson for Joseph just as much as it is God's lesson for us that the Lord is calling us to give great thanks for His electing grace — that is, His kindness that He freely chooses independent of who we are or what we can do.

A temptation into which we can fall is to think that the Lord must act in the way we dictate. By default how often we assume that we know what's best. It's why we sometimes become so discouraged at the way things turn out or when things go against us.....why we complain & resort to coercive means to get out way.

The Lord is calling each of us to repent of any sense of entitlement that shows itself in being crushed when situations don't work in our favour...&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 for this is God's will for us in Christ Jesus. 1 Th. 5:18. **Not only will that encourage others...**but particularly it pleases the Lord as we find more ways to thank Him for His gracious provisions — even the unexpected ones — that He brings into our lives.

The Lord also reminds us that He deals with us kindly — reassuring us of his love, just when we might be tempted to think He is the opposite...V21, 'Then Israel said to Joseph, "Behold, I am about to die, but God will be with you and will bring you again to the land of your fathers. Moreover, I have given to you rather than to your brothers one mountain slope that I took from the hand of the Amorites with my sword and with my bow."

므낏세가 장자였기에, 요셉은 자연스럽게 에브라임보다 므낏세를 더 선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므낏세 대신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때, 이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것을 할수 있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유혹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데로 움직여야 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딴에서 무엇이 최상의 결과인지 알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최선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일이 우리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며, 강압적인 수단을 써서 길을 벗어 내려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상황이 흘러가기를 바라며,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모습에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그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이는 다른 사람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그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우리가 때로는 그럴지 않다 생각할 때에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신시키십니다. 21~22 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겔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Though at a superficial glance, it might seem like Israel is sinning by showing favouritism again to Joseph...the fact remains that having his portion effectively handed to his sons...Joseph needed to know that his father still loved him... that the Lord was restoring to him in some way...the years that the locusts of imprisonment & exile from his family had eaten. As Jacob was to Joseph...so the Lord is with us...at the times of discipline where we need to have our characters honed...after the Lord's hand of tough training has been upon us...He deals gently with us...

### The Hands of Grace that Transform our Hearts

That was the story of Israel's life .... A man whose hand revealed his fallen nature at birth, Whose hands went on to indulge his sinful nature. But whose hands here by the end of his life show that God had transformed his heart.

Well....we dare not gaze on our own hands for true hope...But only to the one who laid his hands upon whose hands were stretched out on Calvary's cross. The Lord's gracious hands remain upon all who are His to experience the truth of Romans 5:20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에게 더 많은 땅을 줘서 자식을 편애하는 죄를 다시 범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그러나 이는 편애 보다는, 요셉이 그의 형제로부터 당한 여러 환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요셉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삶의 여러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십니다...그리고 이런 흑독해 보이는 시간이 지난 후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다시 온화하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손길.

이것이 이스라엘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었고, 그의 손은 계속해서 죄의 본성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가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히 참된 소망을 위해 우리 자신의 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손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뻗어 있어, 로마서 5:20 절 말씀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롬 5:20 “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